



원도심 지하상가의 변신 롤롤루~ 쇼핑이 즐거워

순천 '씨내몰' 개장 한달...새 쇼핑 명소 탈바꿈



지난 3월 20일 개장한 후 쇼핑객으로 북적거리는 '씨내 몰'. 순천시는 중앙동 옛 지하도 상가를 리모델링해 명품 쇼핑거리로 만들었다.

청년창업점포 등 개성만점 가게 입점 2만5천명 찾으며 침체된 상권 활기 소극장 등 문화공간 늘려 볼거리 즐비

순천시 중앙동 옛 지하도 상가가 리모델링을 통해 명품 쇼핑거리로 재탄생해 원도심 상권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새 쇼핑거리 이름은 '씨내 몰'. '씨내 몰'이라는 명칭은 예전에 지역민들이 지하도상가가 있는 중앙동에 갈 때 '씨내 간다'라고 했던 점에서 착안해 시내를 '씨내'로 경음화해 만든 말로, 옛 명성을 살리자는 상인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순천시는 지하도 상가를 리모델링한 후 지난달 20일 '순천 씨내몰'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섰다. 개장후 1개월동안 '순천 씨내 몰'에 평일 500여명, 주말 800여 명 등 2만4400여명의 쇼핑객 발걸음이 이어지며 원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는 인근 중앙동 상가에도 유동인구를 늘리는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인근 벌교, 고흥, 구례군 주민까지 쇼핑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청년 창업점포 등 개성적인 가게 입점=순천시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은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순천 경제의 중심지였다. 1990년 문을 연 지하도상가(길이 250m, 4823㎡ 규모)는 전남 유일의 지하도상가였다. 원도심에 마땅한 쇼핑공간이 없었던 때 인파가 북적일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2000년 이후 신도심 개발과 각종 쇼핑시설이 들어서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에 순천시는 원도심을 살리고자 '순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거쳐 2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3년 11월부터 구조변경 공사를 시작해 현대식 시설을 갖춘 명품 쇼핑거리로 만들었다. 당초 135개이던 점포를 84개로 줄였다. 이 중에는 청년 창업점포를 비롯해 뷰티 힐링점포, 특산품 코너 등 현



'씨내 몰'에서 자녀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쇼핑객.



특성화 발굴사업을 위한 순천씨내 '상인대학' 졸업식.

대적이고 개성 넘치는 점포 30여 개가 입점했다. 시는 점포를 줄이는 대신 보행공간을 확충하고 에너지 절약에 LED 전등 교체,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 편의시설을 늘렸다. 또 휴게공간과 그림 전시공간(갤러리), 소극장, 열린방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대폭 확충해 쇼핑의 재미를 더했다. 차별화된 업종이 입점하며 학생과 젊은 손님을 끌어모아 고객 연령층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거뒀다. 실제로

공예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가게에는 방과 후나 주말에 어린 자녀와 체험을 하는 젊은 학부모들로 붐비고 있어 주말 나들이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원도심과 지역경제 살리는 이중효과 기대=순천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청 주관의 '원도심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중앙동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상권활성화 재단'을 설립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사업은 원도심을 '걷고 싶고, 즐기고 싶고, 사고 싶은 대표 쇼핑 공간'으로 만들어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중앙동 패션을 중심으로 한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지하도 상가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유입을 가속하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사업으로는 원도심 상점가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앙시장 변화를 위한 시장 특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특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상권활성화 구역내 상점가 및 고객 편의시설 안내를 위한 LED 홍보 영상물 제작을 추진한다. 또 상권활성화 구역 내 상인회별 특성화 발굴 사업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과 원도심 상점가와 문화의 거리 버룩시장과 연계한 '개릴라 콘서트'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상권 활성화 구역내 지역민, 상인,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씨내로 통할 축제'와 씨내몰과 주변 학교와 사회단체가 함께 연계한 벼룩시장 등도 개최한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 구역내 상권 안내를 위한 고객용 상권지도, 가이드 북 제작, 원도심 상권 블로거단을 운영해 홍보 및 활성화를 꾀한다. 조중훈 시장은 "개장 1개월을 맞아 '씨내 몰'의 인지도가 원도심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하며 인근 상권에도 긍정적 역할을 마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상인대학 등을 통하여 상점가 과다 경쟁보다는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박선천기자 ejkim@



'정원의 날' 선포...정원문화 퍼뜨리자

순천만정원서 다양한 행사
순천시는 정원의 날 선포문에서 "순천은 대한민국 대표 정원의 도시로 한반도를 넘어 온누리에 정원문화를 퍼뜨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 정원 페스티벌'을 내년부터 2년마다 개최하고 '2016 순천만 정원산업 디자인전'을 비롯해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해 우리나라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정원산업 육성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7월 3~14일) 마스코트인 '누리비' 캐릭터가 등장해 U대회를 홍보했다. 광주 U대회 관계자는 전 세계 170개국 2만여명의 선수단과 임원진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인 만큼 정원 박람회와 성공적 개최를 이뤄낸 순천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순천 동천에 자전거 순찰단 뒀다

야외활동 시즌 맞아 봉화산 둘레길 등 순찰 강화

본격적인 야외활동 시즌을 맞아 순천경찰이 '봉화산 둘레길'과 동천에서 순찰을 강화한다.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43명의 경찰관으로 순찰대를 구성해 이달부터 10월까지 평일 저녁 시간대(오후 6~9시)에 '봉화산 둘레길'과 동천에서 도보 및 자전거 순찰을 실시한다.



과 강력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순천시 전체적으로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강도·성범죄가 29.2% 감소했다. 최삼동 서장은 "순찰대 운영 이외에도 내 고향 CCTV 달아주기 운동과 우리 마을 담당 경찰관제, NFC(근거리 무선통신)를 활용한 공인 안심신고망 구축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면서 "도보 및 자전거 순찰대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한층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63년 전통의 광주·전남 대표신문 光州日報 知識을 넘어 智慧를 공유합니다. 창사 63주년

광주일보 63년, 미래를 밝힐 '100년 신문'으로

심정초등학교 봉사활동 2기 캄보디아 사회공헌 연수 2014년 11월 26(수) - 11월 30(일) 광주일보사

광주일보 창사 63주년을 축하합니다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회장 윤풍식 (주)국민통신 대표) 원우 일동

광주일보는 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KWANGJILBO LEADERS ACADEMY